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전위원회  
공민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상담부서  
전주특별자치도 무안로 895신원동 344-20 환경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음 6월 20일)

제21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익산 왕궁 가축분뇨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전북도, 관리실태 합동점검·법령 위반시설 고발 등 강력 대응 나서 주요제 등 수질 모니터링·가축분뇨 무단 방류행위 상시 감시키로

전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왕궁지역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도, 익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0일부터 환경오염행위 근절될 때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왕궁정착농원 3개 농장(익산, 금호, 신촌)과 학호마을 101양돈농가와 악취방지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사된 익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약제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 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제 및 익산천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도와 익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수질개선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일과도 함께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상시 감시해 나갈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 예방 및 사후 가축분뇨 처리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

로 IT기술을 활용,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모두 설치했다.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환경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상시감시 활동 전개와 주요제 등 가축분뇨 유입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수질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측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환경 개선과 왕궁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 유적지에서 확인된 구리 생산 유적지.

## 호남 최초 구리 생산유적 확인

### 진안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製銅) 유적에서 호남 최초의 구리 생산유적이 확인됐다.

발굴조사는 전라북도와 진안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에서 실시했다.

유적에서는 구리를 생산했던 제동로(製銅爐) 2기와 대규모 폐기장, 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는데, 유적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토기가 일부 수습됨에 따라 고려시대 이전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문헌기록으로만 알려진 '동향소'의 실제 드러나 제동로는 2기가 조사돼 2호 제동로, 비교적 양호

제동로는 총 2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노벽(爐壁)과 배재구(排滓口) 등의 상부구조는 유실되었고, 노를 축조하기 위한 하부구조만 남아있었다.

2기 중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2호 제동로는 지표를 알게 파낸 후, 위에 흙과 석재를 50cm 가량 쌓아 하부구조를 조성하였는데, 석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長方形)에 가깝다.

제동로 동남쪽에는 흘러내린 유출재(流出滓)가 남아있으며, 이와 가까운 곳에 지형을 다듬어 슬래그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인 배재부(排滓部)가 조성되어 있다.

2호 제동로는 노의 구조와 유출재의 존재로 볼 때, 제련(製鍊) 공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지역 서남쪽 조사경계 부분에서는 건물지 1기의 일부가 조사되었는데, 구리 생산유적의 생활공간 또는 제련을 통해 생산된 구리를 가공해 완성품을 제작하기 위한 공방지(工房址)일 가능성이 있다.

유적은 폐기장 하층에서 수습된 유물로 볼 때,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동향소(銅鄉所)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적 내에서 삼국시대 토기가 일부 수습되어 유적의 운영시기가 고려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그 동안 구리를 2차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든 흔적은 부여 관북리, 익산 왕궁리 등에서 조사된 바 있으나, 원석에서 구리를 1차적으로 생산한 유적은 전주 일부지역 외에는 거의 조사된 예가 없다.

진안군은 이번 조사 성과를 토대로 추가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적 정비와 활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도 산림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꽃누리미 부채 만들기' 체험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고해중)내, 산림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꽃누리미(압화) 부채 만들기'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체험운영은 여름철에 잘 어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채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배우고 즐기는 유익하고 참다운 체험학습 교육이며 산림자원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산림 교육문화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 맞이 체험교실 이외에도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체험운영, 가을 단풍철 특별개관 등 다양한 산림 교육문화 체험 운영 및 도민중심의 고품질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전북산림박물관 홈페이지(http://forest.jb.go.kr/forest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 양승태 행정처 "국민들은 이기적 존재"

###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국민 호응이 부족한 이유 등을 분석한 문건이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31일 공개한 '(140831)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파일에 따르면 당시 상고법원과 관련해 "BH입장에서 전혀 이산화되지 않는 점과 '국민들 마음에 외당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BH(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 써야 될 정도로 이산화되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사 중 '현황 파악 필요' 보도로 채택된 경우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나 상고법원 이슈는 지금까지 한번도 '현황 파악 필요' 보도로 채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건은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

들 마음에 외당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 논리가 대법원 사건 수가 많고 대법관이 힘들며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논리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건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다.

/뉴시스

# 제11대 전주시의회

##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230-3731)〉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  
〈의정팀장: 230-3710, 의사팀장: 230-3720, 홍보팀장: 230-3730〉

〈방청안내: 230-3713〉

